

# 미래세대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

*A Study on Future Generation Youth's Family  
and Employment Culture*



박수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현 시점의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영역 및 고용영역의 성평등인식 실태와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청소년가치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가치관, 성평등인식, 일반 가치관 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의 가족·결혼·자녀에 대한 태도는 성인들의 태도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훨씬 유연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용성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청소년에 비해서 성평등인식 수준도 높아졌다. 특히 가정내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 정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성평등 인식 등 일반적인 태도 항목에서 남녀간 성별 자체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교육내용에 다양한 의식수준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고용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교과서 분석, 법·제도적 인프라 실태 검토, 한국적 상황에 맞는 가족문화·고용문화 제안 등을 시도해 보았다. 어느 경우에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가치는 개방성과 사회적 관용성의 증대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연구는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이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미래세대의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연구이다.

## 1. 머리말

198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한국사회의 출산력 수준은 2005년 현재 급기야 합계 출산율 1.08명을 기록하며 최근 세계 최하위 출산률 국가로 자리매김되었다. 인구현상은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를 나타내며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동의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인구변

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시점을 실기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더욱 뜨거워져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고 가야만 하는 과제이다.

최근 정부는 2006~2010년까지 5개년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여개 과제에 32조원의 재원을 편성하기로 하였다<sup>1)</sup>. 이 과정에서 초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의 원

인과 해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율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관점과 견해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심대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초저출산 현상이 야기된 데에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에서도 한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얼핏 보기에 ‘성평등’과 ‘출산력 수준’은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역사적 과정과 한국사회의 단편적인 경험적 연구들은 한 사회의 성평등 실현이 출산력과 같은 인구 현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sup>2)</sup>. 가족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실현 정도는 개인,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개인 및

개별가족의 생애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현재 결혼을 한 사람들이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성평등한 가족 및 직장 관행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집단들에게는 결혼 시점과 출산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출산 시점을 앞당기고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성평등 실현이라는 대과제가 출산력 수준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만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성평등 실현은 여성은 물론이러니와 남성에게도 궁극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테마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 출산력 수준의 회복과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상호 연관된 두 과제를 위하여 특히 미래세대에 주목한다.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sup>3)</sup>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한국사회 가족문화, 고용문화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두 축, 즉 가정과 일터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이뤄진다면 개인은 사회적 지원을 바탕으로 낳고 싶은 만큼 낳아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의 방향성을 대안적으로 제시하고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청소년의 가족 및 성평등 의식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 조사한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이다. 이 조사는 전국 초, 중, 고교 132개 학교 365개 학급의 학생 약 13,000명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진행된 청소년 가치관조사이다. 표본설계 모집단은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학생이며, 조사기간은 2006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조사대상수는 11,240명이다.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가치관, 성평등의식, 일반 가치관 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가치관은 아직 형성단계에 있어서 하위 가치관간의 간극도 크고 실제 행위와 태도 사이의 불일치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가족·결혼·자녀에 대한 태도는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는데 성인들의 태도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면서도 훨씬 유연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용성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청소년에 비해서 성평등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표 1 참조).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전체적으로 볼 때, 집안일에서의 성 역할 구분에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사분담이나 가족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매우 성평등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 역할에 대해 허용적이다. 직장 영역에서는 여성들의 진취적인 커리어 추구에 많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허드렛일에는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태도도 상당 부분 발견된다. 결국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가정 영역과 직장 영역에서 성평등한 의식을 지니면서도 사안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가치관단적인 태도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이 인식한 성차별적인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특히 2002년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sup>4)</sup>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집안

1)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2) 박수미, 2005,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생애주기별 접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14-03.

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미, 2005, 「저출산의 젠더 분석 및 정책 대안 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Chesnais, Jean-Claude,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pp. 729~239.

Kunzler, Jan, 2002, "Path Towards a Modernization of Gender Relations, Policies and Family Building", Schulze, H-J, et. al.(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cdonald, 2000, "Gender Equal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pp. 427~439.

Torr, Berna Miller & Short, Susan E, 2004, "Second Birth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pp. 109~130.

3) 발달단계 또는 생애주기상의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가치관조사>의 조사대상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청소년으로 부르기로 하고 청소년 가치관 조사결과 해석시 구체적인 조사대상을 언급할 때는 학생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4) 김양희외, 2002,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개발].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도구는 청소년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젠더관련 이슈를 반영하는 13~18세를 위한 청소년용 성평등의식검사 도구로서 2002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검사지는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검사의 표준화 및 규준 마련을 위해 전국에 거주

표 1. 가족에 관한 학생의 태도(종합)

(단위: %, 명)

구분	전혀 찬성 안함	별로 찬성 안함	대체로 찬성함	매우 찬성함	계	명	평균 점수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24.1	42.2	26.7	7.0	100.0	(11,239)	2.17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42.4	36.0	17.4	4.2	100.0	(11,232)	1.8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9.1	19.8	42.5	28.6	100.0	(11,233)	2.91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14.7	26.5	44.9	13.8	100.0	(11,229)	2.58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26.4	40.2	26.3	7.1	100.0	(11,232)	2.14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15.6	23.1	39.9	21.4	100.0	(11,237)	2.67

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는 항목으로 적어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집안일에 남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매우 보편화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02년 청소년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거나 직장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태도는 좀 더 보수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간의 경제불황과 저출산 현상에 기인한 결과가 아닐까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지 정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우려되는 부분은 성평등 의식 등 일반적인 태도 항목에서 남녀간 성별 지체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이다.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

학생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차별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보편주의 가치관’, ‘자기 성취 가치관’도<sup>5)</sup>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이에 비해 남학생은 차별적 태도와 연결되는 ‘권력 가치’적 성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교육내용에 의식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족관련 태도에서의 성별 격차는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가족형성 등 사회 재생산에도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대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 최근의 저출산 위기 정국의 부작용으로서 의식수준에서의 보수화 경향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및 집행, 홍보 과정

하는 남녀 중, 고등학생 3,150명을 대상으로 검증, 확정된 것이다.

5) 박수미·정기선·김혜숙·박건, 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에서 개방적인 태도와 성평등한 의식 수준 제고를 분명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들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해서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적합한 가족문화·고용문화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3. 중·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본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 1)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문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고용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청소년

법·제도적 인프라 실태를 검토하여 한국적

표 2. 성평등관 2002년과 2006년 비교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평균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2002	2.2	7.6	44.8	45.3	3.33
	2006	3.7	10.5	37.4	48.4	3.31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2002	40.4	48.5	8.0	3.0	3.26
	2006	45.3	44.1	8.1	2.5	3.32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	2002	44.3	45.8	7.4	2.0	3.31
	2006	53.1	37.9	7.1	2.0	3.42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2002	5.8	31.3	38.0	24.6	2.81
	2006	12.0	34.6	38.0	15.3	2.56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2002	41.8	50.4	6.5	1.3	3.33
	2006	51.1	40.5	6.6	1.8	3.41
6)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2002	2.0	16.7	48.0	33.2	3.12
	2006	3.5	17.5	43.3	35.6	3.11
7)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2002	7.3	22.3	47.9	22.2	2.84
	2006	11.0	25.4	37.6	26.0	2.79
8)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2002	3.8	20.0	41.8	34.3	3.06
	2006	6.7	21.2	36.8	35.3	3.01
9) 여자가 판사·검사과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2002	39.6	48.4	9.2	2.8	3.25
	2006	45.8	39.7	10.8	3.7	3.28
10)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2	2.3	8.5	44.3	44.7	3.31
	2006	6.6	14.2	37.6	41.6	3.14

주: 1) '매우 찬성함'=1점, '대체로 찬성함'=2점, '별로 찬성안함'=3점, '전혀 찬성안함'=4점으로 측정. 문항2), 문항3), 문항5), 문항9)는 역부호화하여 모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면 됨(이하 동일).

상황에 적합한 가족문화·고용문화를 모색해 보았다.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초점으로 청소년 교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내용수정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만을 비교하면, 중학교 내용에 비해 고등학교 교과내용이 한걸음 더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한 서술이 당위적인 차원에서 그쳐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두드러지지 못한다.

교과과정상의 형식적 측면에서 첫째, 중학교 교과과정에도 고등학교의 기술·가정에 준하는 내용이 포괄되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근접하게 분석되는 것은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교과내용이 포괄되었기 때문이다. 도덕과 사회과목에서 특히 전통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문화’에 관해 전통적인 방식을 이상형으로 제시하여 현대가족의 특성을 하나의 일탈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조망하는 측면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중학교의 기술, 가정 교과내용 중에도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통해 해당내용들을 서술하는 측면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의 과목별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같은 내용이 도덕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와 기술·가정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접

근방식과 문제의 구성,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에서 편차가 커서 학습하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일관성을 견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문화의 내용이 기술·가정과 같은 ‘가정’을 초점으로 하는 교과목에만 편중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에서 요청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가정을 사회와 구분된 하나의 범주로 상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도 포괄하기 때문이다. 기술·가정의 교과목이 통합되었지만, 내용면에서 기술과 가정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고, 가족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가정’ 과정에 국한되어 있다. 기술과 가정을, 가정을 기술과 연결시키는 유기적인 시각으로 가정, 가족문화가 사회문화와 연계된다는 재구성이 필요하다.

내용의 측면에서 첫째, 전반적인 서술에서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거한 교육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sup>6)</sup>, 성평등한 가족문화 자체에 대한 접근은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일관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향과 각도에서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틀을 구성하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덧붙여 당위적인 서술을 피해 청소년들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삽화나 그림에서 본문의 서술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

와 배려가 요청된다.

둘째, 가족의 형식적 측면을 둘러싸고 다양한 가족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전통가족 대 핵가족이라는 대비는 현대 사회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내용이 뒤쳐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가족문화 자체를 경직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본 인식틀이 형성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열린 자세로 가족을 바라보게 되면 가족문화에서 진행될 다양한 관계를 일차적으로 남녀 성별구도를 넘어서서 고민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가족 내에서의 관계에 대해 가사노동 분담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차세대에게 이런 평등관계를 어떻게 전수할 것이며, 더 포괄적으로 고령화 시대의 도래를 고려할 때, 노인세대와는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할 것인지도 다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즉 청소년의 현재, 그리고 가족을 구성할 미래만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가족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는 것이 정책의 측면과도 연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3인 가족 혹은 4인 가족 내의 성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을 기본으로 한 성평등한 가족문

화를 넘어 사회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가족문화를 ‘정상’으로 바라보거나 단일한 가족형태를 고착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구성의, 다양한 내용의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가능함을 원칙적으로 제시하는 서술이 포괄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측면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여성/어머니의 직장생활과 가정의 양립, 남성/아버지의 직장생활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성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고용문화

청소년들의 성평등에 대한 교과내용은 대부분 규범적인 수준에서 가부장적 문화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가치지향성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라서 가족 내에서도 상응하는 역할의 변동이 필요하고, 남편과 부인 간에 역할분담이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sup>7)</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평등한 고용문화와 관련해서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성 평등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 사회의 온전한 시민이라면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급 노동에 참여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남녀를 떠나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

6) 민무숙·박성정·김열림, 2006, 『양성평등교육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탐색』, 한국여성개발원.

7) 이상식 외, 2005, 『인구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들이 거의 전담하고 있는 가정생활 유지에 들어가는 무급의 돌봄 노동을 남녀가 같이 나눠 하고, 가정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인 자원활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사회나 도덕 교과서 전체에 걸쳐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과서에는 고용문화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양한 직업영역으로 진출하는 사례 제시와 더불어 가정내에서 남녀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사회 구조나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문화 교과목에서 여성의 직업과 육아 문제는 현대 사회의 갈등 상황의 사례로, 도덕 교과목에서는 여성의 결혼 기피 이유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육아와 노인부양 등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가정과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결혼기피와 저출산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체계적인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결혼 기피, 저출산의 원인이 직장내 성 불평등한 고용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언급도 거의 없다.

일-가족의 양립은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된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과 의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성에게만 일과 가족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성불평등한 고용

문화가 지속되는 한, 여성들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하위직에 집중되는 성별 직업 분리와 성별 임금 격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과 국가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외국의 대안적인 사례들이 보다 풍부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문화와 관련한 교과목 내용의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본문 내용과 그림, 사진 등의 자료들이 서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나 역사적인 서술이 성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면 대부분 남성들이 등장하여 남성이 보편적인 인간을 대표하거나 사회변화와 역사의 주체로 표상되는 성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교과서의 저자들이 대부분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삽화나 사진담당자도 남성들이라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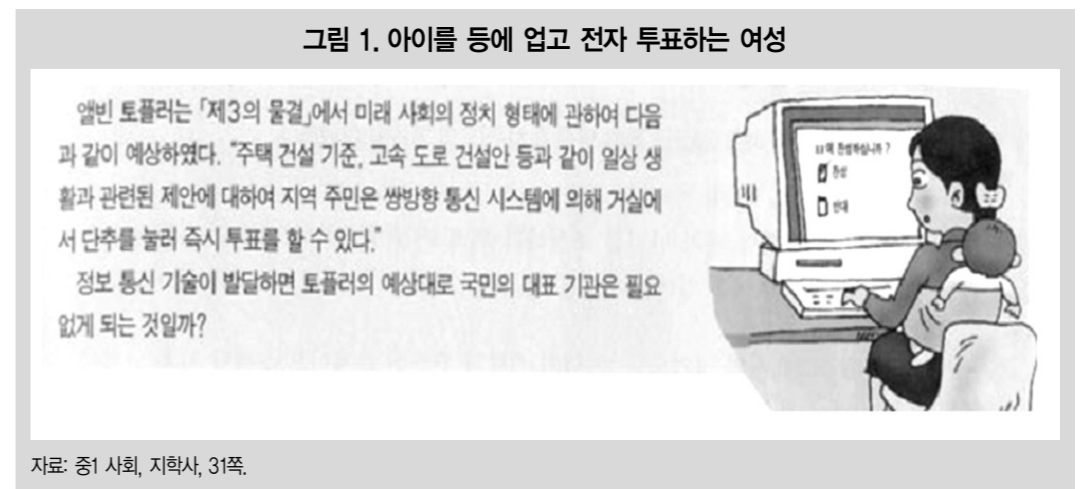
성역할의 변화와 성평등한 고용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문의 독립된 내용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교과서 전반에 걸쳐서 성 평등에 대한 가치 지향이 일관되게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내용과 그림이나 사진 등이 일관성 있게 사회 각 분야에서의 성평등의 현실과 미래를 묘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일-가정 양립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되고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향과 모순되는 삽화가 버젓이 청소년

교과서에 삽입되어 있다. 문자메시지보다 정보 전달 효과가 뛰어난 시각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이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교과서 시각매체의 선택에 있어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평등한 직장문화와 가정생활에 대한 예시를 많이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 교과서에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교과 저자와 그림, 사진 담당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양적인 대표성 뿐만 아니라 성평등의 질적인 내용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교과 집필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또는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4.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에 대한 제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문화를 분석해 본 결과, 사회적 변화와 함께 현재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핵심에는 '다양성'과 '평등'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성에서는 3-4인의 가족형태에 집착하지 않는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혈연'에 집착하지 않는 새로운 가족형태의 모색에 대한 포괄적 이해도 이야기되고 있다. 또한 '평등'의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의 가족구성에서도 파트너 간, 세대 간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족이 꾸려져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괄하여 만들어지는 가족이 바람직한 한국형 성평등 가족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성평등한 고용문화도 이와 같은 성평등한 가족문화의 논의와 연장선상에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성에 입각한 사회분업관



행이 해체되고 이 기반 위에서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차별적 고용관행이 개선되면서 사회구성원 개인의 생활이 보장되는 가족·생활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미래세대를 위한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사회 청소년 교과서의 내용 그리고 법이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도 사실 ‘청소년’을 중심 대상으로 상정하는 내용은 많지 않다. 미래세대에 대한 가치지향적 육성을 염두에 두는 연구이기에 더욱 초점을 ‘청소년’으로 맞추는 시각의 전환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부모세대의 문제를 청소년들에게 주입하거나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보다 청소년 세대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혹은 청소년 세대의 현실에 걸 맞는 성평등 가족문화가 어떻게 가능할지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방향전환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사회에 적합한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는 어느 경우에도 개방성과 사회적 관용성의 증대를 주요한 가치로 요구한다. 가족과 고용 모두 열린 개념으로 접근되고 구성원의 행복이 최우선 과제로 접근될 때 ‘성평등한 사회’는 더 이상 남녀의 구분도 노소의 구분도 사라지는 통합적 사회로 인식될 수 있다.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은 곧 생활친화적인 고용정책이며 이것은 어떤 개인도, 어떤 가족도 배제하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 성평등한 가족문화는 남녀의 차별도 사라지지만 세대간 차별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성평등한 고용문화는 동일한 철학에 기초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젠더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차별이 사라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 5. 맺음말

시장노동으로 대표되는 ‘일’의 세계와 자신과 가족을 보살피고 다음 세대를 낳아서 키우는 ‘가족생활’ 영역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지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한국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의 초저출산·초고령화 화두 속에서 한국사회 보살핌노동 영역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현 시점의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성평등’ 수준의 제고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연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영역 및 고용영역의 성평등의식 실태와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이제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가까운 미래에 여성노동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개인이 요구하는 바는 일치하는 듯하

다. 노동력 부족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사회는 양질의 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는 개별가족에게 과부하되어 있는,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사 및 돌봄노동과 같은 무급노동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그 방식은 공보육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혹은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직·간접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연히도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따라서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 즉 유급노동을 하고 싶고 또 해야 한다. 바로 여성들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하고 싶고 일해야 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회와 여성들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있는 듯하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여성노동과 연결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의 하나는 ‘날고 싶은 만큼 낳아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바는 정확히 생산인구의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침체이다. 국가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이 든 사회(old population)가 되고 절대 인구마저 감소하면서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성원들의 이상적인 자녀수는 여전히 2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람들의 라이

프스타일이 달라지면서 독신율도 늘어나고 이혼율도 늘어나지만 이것을 사람들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의 감소로 해석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히려 친밀성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욕구, 기존의 친밀성 구조 즉 기존의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현재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80~90%대로 끌어 올려야만 할까? 여기에서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고 한다. 즉 일하고 싶은 여성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차별적 관행들이 사라져야 하듯이, 보다 넓은 의미의 ‘일’, 즉 돌봄노동을 선택하면서도 여전히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상이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 성원들 특히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시장노동의 의무와 재생산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장노동의 권리와 재생산노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노동을 권리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가까운 시기에 도래할 우리의 미래사회는 매우 경쟁적이고 많은 사회성원들이 일생 동안 장기간의 실업 상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이다. 그런 사회를 염두에 둘 때, ‘유급노동을 중단할 권리’, ‘돌봄노동에 주력할 권리’라는 표현은 매우 위협스럽게 보이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권리 제한도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모순되게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회 성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시장노동의 의무와 재생산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이면서도 그 두 가지 노동을 도저히 병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돌봄노동이 개별 가족에게,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전담되어 있는 현실과, 이것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노동시장, 일 속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장시간의 노동 관행 등 수많은 관행들이 난마처럼 얽혀서 결과한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사회가 여성 노동력에 요구하는 바와 여성들 자신이 요구하는 바의 표피적 상동성이 실질적 상동성으로 전화되는 미래도 가능하다. '일'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그 '일'을 해야 할 주체들을 확장시키면 가능하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확장된 일 세계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부모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성평등한 고용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부분의 해결이 선결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